

【찬반논쟁:반】 개성·창의력 발휘할 인재 양성 위해 필요

정재춘 사무국장 부천고등학교 총동창회 고교평준화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7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왔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장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폐단이 많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본다.

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판박이식 교육'으로 개성과 창의력이 존중되는 21세기에 적응할 인재를 키울 수 없다. 21세기는 지식기반의 사회요, 정보화사회로 창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보다는 교육의 질이 요구되고 우선된다.

일각에서는 비평준화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평준화 지역은 어떤가? 학생들은 어느 것 하나 열심히 하는 게 없다. 시간이 많아 자율적으로 독서도 하고 음악회도 가고 인터넷에 들어가 전문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출 것 같지만 오히려 남는 시간에 잡담하거나 졸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는 등 학교붕괴에 일조하는 학생이 많다.

따라서 고등학교마다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교육시킨다면 그 고등학교는 분명 일류가 될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다양한 능력과 적성 그리고 각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필요하다. 획일화된 학교교육체제로서는 더 이상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경쟁 체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얼마만큼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모든 고등학교가 똑같은 교과서에 똑같은 내용을 공부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논해야 할 것은 고교평준화가 아니라 학교마다 전문화와 특성화를 살리는 방향에 대한 논의다.

반박 1 비 평준화가 창의성 교육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부터 반 강제적으로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브레인 스토밍(창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창의성은 광범한 독서와 자신의 삶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사고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아침부터 밤 늦도록 외우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비평준화 지역 중학생이 교과서이외의 책을 몇 권이나 읽는지 학부형님이 더 잘 알 것이다.

반박 2 어느 것 하나 열심히 하는 것이 없다.

열심히 하고 안하고는 학생의 관심과 능력의 차이이지 입시제도의 차이에 있지 않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서열이 높은 학교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 모여 있어서 그렇지 평준화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은 있다. 이번 교육 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반박 3.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반박 4. 다양화 논리

교육과정, 교육목표,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지역과 달리 다양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양성의 이름으로 서열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